

12기 남녀대협 지도력 구축을 위한 토론 제안서

80년 오월 여성의 뜨거운 피를 이어받은 자주의 성지 한반도 남녀대협 5만 여학우여 여학생운동 11년의 역사를 계승하고 벼를 깎는 혁신의 자세로 12기 남녀대협 지도력을 튼튼히 구축하여 99년 주동적으로 미제에 의한 54년의 착취를 끝장내고 기어이 연방 통일조국 안아오자!!

1. 11기 남녀대협 의장님과 간부님의 상황

김수진 의장님은 지금 광주옥에서 적들과 싸움을 하고 계십니다. 실형 3년을 선고받고 항소중입니다. 그리고 간부님 역시 병보석으로 나와 병원치료를 계속 받고 있으며 역시 실형 4년을 선고받고 항소중입니다. **763년 7남유 4년**
부득이하게 11기 남녀대협에 대한 책임있는 평가를 내릴만한 상황이 안되어 11기 남녀대협 대표자로서 활동했던 제가 이렇게나마 정리해봅니다.

2. 남녀대협의 지도력 구축에 견지해야 할 입장과 관점

99년 정세상 남녀대협은 중요한 시점입니다.

미국에 의한 전쟁책동을 분쇄하고 기어이 90년대 연방 통일 조국을 안아와야 할 시점입니다. 민족의 운명이 공멸이나 아니면 7천만 겨레가 민족 자주를 찾고 조국 통일을 이루느냐는 지금 우리들의 투쟁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다시 전쟁이 일어나면 이 땅 한반도의 남성은 총알받이로 그리고 여성은 정신대로 끌려가는 것은 당연한 일 일 것입니다.

이러한 때 남녀대협을 중심으로 우리 5만 여학우가 단결하고 투쟁하여 미제의 제국주의적 속성을 파헤치고 한반도 지배야욕을 깨부수고 민족 번영의 길, 영생의 길 조국 통일을 안아와야 할 것입니다.

새 천년의 여학생운동의 상을 그리면서 전망을 내와야 할 것입니다.

남녀대협 11년의 역사 속에서 지역 여학생운동의 정형을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에서 많은 과오를 범하기도 하고 많은 모범을 창출하기도 했습니다. 대학 마다 천차만별 다른 여학생운동의 토대, 기풍들의 문제를 통일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한 여대협의 건설, 강화는 필연적으로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12기 지도력 구축의 문제는 어느 것 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투쟁하면서 12기 남녀대협 건설을 해내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고 모든 대표자가 그 책임을 가지고 지역 여학생운동의 발전을 이끌고 조국의 연방통일을 안아옵니다.

3. 12기 남녀대협 건설의 원칙

12기 남녀대협의 발전전망을 내오는 과정이어야 한다.

남녀대협 지도력 구축의 과정은 기간 여학생운동의 성과점과 한계점을 올바르게 평가하고 계승과 혁신의 관점을 가지고 99년 새 천년의 여학생운동의 상을 그려야 할 것입니다.

- 학생운동, 한총련의 강화 발전의 선상에서 구체적으로 명확한 강화 복무 지점을 밝혀야 한다.

- 광주 전남 지역 5만 여학우를 책임지는 여학생운동 조직으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한다.

- 현재 상황에서의 여학생운동의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를 도출하고 합의 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전 대학의 여대협 강화의 결의가 확보되고 건설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플간단위 조직과의 논의를 통해 조직적으로 인신하도록 해야 한다.

인선과정도 투쟁입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어느 대학도 상황이 좋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것이 대학의 실정이고 여학생운동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인선에 있어서 우리 대학이 힘들니까 너희 대학에서 해라 하는 식의 떠넘기기 식의 인선은 조직을 올바르게 세우고 중심으로 통일 단결하는 우리의 기풍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가 합니다. 어려울수록 서로 결의를 내오고 그 속에서 힘있게 투쟁을 전개하는 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원칙입니다. 인선 과정동안 도출된 많은 여학생운동에 대한 논의와 과제들을 일꾼들과 합의해 가면서 여학생운동에 대한 결의를 확보하고 드높이는 조직적인 투쟁의 과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4. 남녀대협 임시 의장을 받아안을 대학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남녀대협의 중차대성을 인식하고 여학생운동의 모범적 정형과 여학일꾼들의 건강성과 올바른 기풍이 자리잡힌 대학이어야 한다.

여대협 운동의 중요성과 여대협 강화의 결의를 가진 대학이어야 한다.

남총련 각 대학 상황 속에서 대학과 남총련의 대표자로서의 활동을 고민해야 하기에 이것에 대한 조직적 담보가 되어야 한다.

여학생운동에 대한 대표자의 열정적인 고민이 풍부하고 신념이 드높으며 조직의 중심으로 활동하실 수 있는 자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지역적 한계나 남총련을 책임져야 하는 또 다른 요구들이 중첩되는 상황

5. 11기 남녀대협을 민족전대에서 받아 안으면서의 성과점

기간 4년동안 남녀대협과 전여대협의 재기를 받아오고 실제 의장 대학으로서 활동해 오면서 대학만의 운동 지도가 아닌 전국적으로 전체운동과 여학생운동의 모범을 총화함으로써

대학 여학생운동을 한차원 더 높일 수 있는 운동의 질적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대학 총여 및 단여 간부들에게 총여회장을 뺏겼다는 마음보다는 여대협을 책임지고 남총련 운동을 책임지는 대학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가 운동에 대한 결의와 책임성으로 또다른 발전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기층 여학생회 단위까지 전여대회, 남녀대협을 자신의 상층조직으로 받아안고 투쟁을 적극적으로 해나가는 결의를 내왔습니다.

전체 대오에서 여학생운동에 대한 위사를 높여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6. 정리하며

12기 남녀대협의 출발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조선대 총여회장님의 연행 각 대학 총여의 어려운 상황....

하지만 여대협 강화와 한총련 강화의 한길에서 살겠다는 결의로 99년 준비하고 정말 항일 여전사의 후예답게 단순히 의장을 하느냐 마느냐의 논의가 아닌 이 지역 여학생운동을 발전시키고 전체 여학생운동을 발전시키겠다는 결의로 그리고 기어이 민족 영생의 길 조국 통일을 안아오겠다는 결의로 임시의정님을 주축으로 여대협 강화를 아루어냅시다.